

# 한국인의 意識과 행동양식

金在恩 교수, 文獻조사와 실제연구 통해 분석

## 한국인의 意識과 행동양식

金在恩 著

이대출판부 / A 5 신 / 382면 / 7000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한민족의 본질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인간이 자기자신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행동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자기이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해방전 日本학자들과 서양선교사들의 연구·견문록 등을 합쳐 한국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에 관해 발표

된 국내외 논문들은 무수히 많다.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설 내지 편견이 가미되어 있기도 하며, 또 내용과 결과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는 점도 있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 과거의 연구 종합분석

최근 金在恩 교수(이대 교육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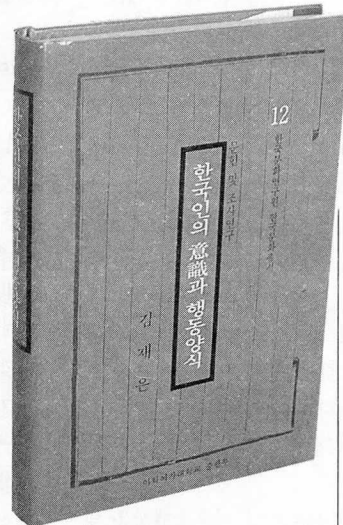
학과)는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이대출판부)이란 저서에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이 분야의 종합적인 분석을 꾀하고 있다.

한국인의 성격·심리·의식·행동 등에 관한 연구는 접근방법에 따라 ① 역사·풍토적 고찰 ② 문화·사상의 분석 ③ 가치관·가치의식의 분석 ④ 심리·사회학적 연구 ⑤ 관념적 분석 ⑥ 일화 분석 ⑦ 외국인에 의한 연구 및 관찰 등 일곱가지로 대별된다.

한국인의 민족성을 역사·풍토적으로 고찰한 李光洙는 「民族改造論」(1922)에서 조선민족의 성격을 仁義禮勇으로 정의하는 한편, 조선인은 관대하기 때문에 현대국민이 갖는 배타적 애국심이 없다고 단점을 논한다. 또한 조선인은 이민족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야심이 없으며, 상공업의 발달이 보잘것 없고, 공교한 단체의 조직이 없으며 彼岸의 낙원을 구하려는 탐구노력이 경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선민족의 민족적 절병을 진단하여 민족갱생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던 崔鉉培는 「朝鮮民族 更生의道」(1930)에서 조선민족의 특징을 의지·용기·활동력의 결핍, 의외심이 많고 성질이 음울한 점, 저축심·신념·자존심의 부족, 도덕심의 타락(그는 국가쇠망의 원인이 반드시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경제적 파멸로 보았다.

한편 咸錫憲은 「뜻으로 본 역사」(1962)에서 한국민족의 착한 성질과 용감성(勇)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상적 전형 인물로 고구려의 바보온달, 신라의 처용, 백제의 검도령을 들고 있다. 그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인의 성격은 부드럽고 특징이 없고 뜨뜻미지근하며, 조용하며 석연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 즉 어질고 착하기는 하나, 심각성·사색·



인」(1981)에서, 한국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농경민족다운 서정을 지니면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격렬한 투쟁도 서슴지 않는 독특한 이중적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유교사상이 큰 영향 미쳐

문화·사상면의 분석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이 지닌 특징을 보면 역시 유교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유교사상은 현실적이며 강한 혈연공동체의식, 위계질서, 양분적 認知체계 그리고 孝의식 등을 형성시켰다. 유교 이외의 종교 역시 민족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巫敎는 의타성·보수성·현실주의·책임감 결여, 불교는 권선징악·자비·기복적 현세성, 기독교는 평등박애·공동체사상, 천도교는 인격의 존엄성·근대적 국가관념을 형성시켰다는 등의 분석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언어 생활과 문학작품에도 잘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극히 세분된 호칭과 상대방의 기분에 영합하는 語辭가 많은 점, 가정법 문장과 관계대명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심청전」 「홍길동전」 「홍부전」 등의 문학작품을 보면, 현실주의적 윤리관,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 克己의 인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가치관·가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사회·정치학, 윤리학,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로 대별된다.

우선 사회·정치학 분야에 속하는 洪承稷의 「한국인의 가치관연구」(1969)를 보면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사상이 강하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緣故성향이 많다고 분석, 신구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윤리학 쪽에 속하는 金泰吉의 「한

지금까지 한국인의 성격·심리·행동을 고찰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주관에 치우쳤고, 때로는 편견이 가미되기도 했다. 김재은 교수는 이들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 종합적인 시각정립을 꾀했다.

자존심이 부족하며 낙천적이고 평화적이라는 것이다.

풍토학적으로 고찰한 고전적 문헌인 李重煥의 「擇里志」에는 거주지의 지리적 환경에 따른 각 지방의 인심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日人학자 鈴木斯郎은 「조선 민족성 私考」(1927)라는 논문에서 조선민족이 山地族과 草原族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민족성의 특징으로 나태성, 현실성, 낭비벽, 평화적이나 도피적인 성격, 자구성, 봉건성, 보수성을 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尹泰林은 「한국인의 성격」(1964)에서 한국의 특유한 계절풍, 고온다습풍도, 지형 등을 분석하여, 수동적·忍從的이면서도 전투적·대항적 성격으로 한민족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金容雲 역시 이러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해 「일본인과 한국

### 알뜰 — 金在恩 교수

“이 연구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 비평은 물론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金在恩 교수(56)의 10년에 걸친 연구의 결실. 이 작업을 위해 2백여권의 참고문헌을 분석하고 세차레에 걸쳐 2천명을 표본조사했다.

이 책의 특징은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이들 문헌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행동을 問項의 자료로 삼아 실제적으로 조사, 연령·교육·지역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함께 실고 있다는 점. 金교수는 이 책의 결론에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의 특징으로 이기적 권위주의·질서행동·인내성·예절·방만성·자위적 비하·이기적 과시성·인정주의·비개방성·미신숭상·전통존중·체면형식주의를 꼽았다. 또한 한국인의 전형적인 의식과 행동양식을 대표하는 계층은 경상도나 전라도의 30대 고졸자 및 대학중퇴자라고 지적하기도.

金교수의 연구목적은 기존의 연구들이 관념적인 면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고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총정리하여 살펴보는 한편 실제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



려는 것. “이른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약 백년 전의 연구에서 지적된 특징들을 오늘날의 우리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金교수는 밝힌다.

과거의 연구들 중에는 지나친 자기기만 또는 자기비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많았는데, 金교수의 연구조사 역시 다소 부정적인 평가로 흐른 경향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金교수는 “과학자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평가는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이에 대한 학문적 비평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진전된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오애리 기자

# 예림당은 이제 명실공히 아동도서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책임과 사명감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용그림책

창작동화

유년용그림동화

전래동화

유아용교육도서

교양문고

세계명작동화

위인전기



어린이도서전문출판

**예림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325-5호  
☎ 249-3333 (대표)

국대학생의 가치관(1967) 연구 역시,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 윤리의식과 현대적·서구적 윤리관 사이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朴俊熙의 「한국인의 교육관」(1975)은 가족주의적 개인주의, 현실주의적이며 적응주의적 성향, 봉사주의와 국가주의적 성격의 결여 등으로 한국인의 교육관을 정의하기도.

심리·사회학적 연구는 정신분석적·해석학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와 사회조사연구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인의 사회심리를 분석한 오세철의 「한국인의 사회심리」(1982)는, 한국의 윤리가 책임의 차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육아습관과 신념·사회행동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사회라고 분석. 한국인의 심리구조는 동양적 문화특징과 서양적 문화특징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孝와 가부장적 인간관계 질서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이것이 정치·제도·사회조직 심지어 정신병리적 현상에까지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직업관, 자연관, 종교관, 미래관, 가족관, 법의식, 체면의식 등등에 관한 관념적 분석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법학자 張庚鶴은 「한국인의 法的의식」(1969)이란 논문에서 한국인은 가치와 사실, 당위와 존재, 규범과 필연 등의 구별을 잘 못하며, 법과 사실, 법과 도덕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꼬치꼬치 따지기보다는 人情으로 둥글둥글하게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분석. 이러한 특징은 인정주의와 가족주의적 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 “호기심 많고 知的”

逸話분석은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나, 일화·역사적 사

실·사료 등을 기반으로 한 글들이 대부분. 그중에서도 李圭泰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한국인의 의식이 지닌 특징을 열등의식·은폐의식·內向의식·숙명의식·비하의식·의존의식·서열의식·상향의식·체면의식·권위의식·비타산의식·집단의식·恨의식·현세적 내세관·소집단적 집단주의·통찰의식·금욕의식 등으로 규정한다.

끝으로 외국인에 의한 연구·관찰은 대체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내재되어 있는 日人학자들의 연구와 서양인에 의한 연구로 양분된다.

총독부 조사자료「조선인의 사상과 성격」(1927)이란 논문은, 조선인의 특징으로 조상숭배·웃사람 공경·노동·피부노출을 꺼리는 습관·춤과 더운 것을 잘 견디는 힘·위생사상 결핍·공덕심·저축심 결여·허례허식·조흔 관습을 들기도. 高橋亨 역시 사상적인 유동성의 결여와 종속·사대주의를 한민족의 근본특징으로 드는 한편, 寬雅·應嬌·순종·낙천성을 조선인의 美質이라고 평했다.

서양인에 의한 연구는 구한말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기록된 건문록들이 대부분. 알렌의 「조선 건문록」(1908)과 제임스 게이리의 「전환기의 조선」(1909)등을 보면, 조선인은 호기심이 많고 知的이며 친절하나 생산의욕이 없고 家父長의이며, 특히 은둔생활을 하는 조선여인들에게 있어 남의 흥을 보는 일이란 매우 중요하다는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비교적 최근인 1951년, 오스굿이 강화도에서 행한 연구를 기초로 발표한 인류학적 보고서 「한국인과 문화」는, 정신분석학적으로 한국인의 성격은 ‘口腔加虐의’인 동시에 ‘개척적 특징’을 지녔다고 분석하고 있다.